

군산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행정력 집중

진북은행, 군산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추가 협약 체결 상품권 225만장 200억원 발행 9월부터 시중 유통 “차후 사업 참여의사 있는 금융기관 판매대행 협약가능”

군산시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 발행을 앞두고 8일 진북은행과 군산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7월 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 33개소를 비롯한 신한 16개소, 새마을금고 14개소 등 총 63개 금융기관과 군산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

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추가 협약을 통해 관내 진북은행 9개소가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은 총 72개소로 늘어났다.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간에 이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5천원권(50만장), 1만원권(175만장) 등 225만장 200억 원을 발행해 오는 9월부터 시중에 유통할 계획이다. 발행가액 10% 할인된 금액으로 소진 시까지 한정 판매하고 할인 금액은 확보된 국비로 충당하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점포시장 및 골목상권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상시 모집하며, 다만 대규모 점포, 본사가 군산이 아닌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유통주점 및 사행성 게임업 등은 가맹점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원하는 점주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시에서는 심사 후 지정 여부를 통보하고 지정사와 가맹점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김성우 지역경제과장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구매 편의와 가맹점의 환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으며, 차후에도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있을 경우 판매대행 협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가 8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에 대해 각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기 수립된 경관계획이 5년 경과돼 경관법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경관계획을 재정비한다. 이번 경관계획(안)은 고도중흥 도시, 익산을 경관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 2개소, 6개 경관관리역에 대한 경관관리방안, 야간경관계획 등의 계획(안)을 마련했다. 또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익산 경관계획 재정비·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열어

시민과 전문가·공무원 등 100여명 참여

2016.8.4.)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된다. 익산시에 설치·관리되는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구축, 관리를 위해 공공디자인 정책목표아래 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계획이다.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배려와 나눔으로 행복한 공공디자인 복지 정책 목표 아래 ▲생활안전 환경디자인 ▲특색공간 스마트 디자인 ▲홍물개선 문화디자인 등의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을 발굴한다. 한편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공고될 예정이며 계획이 수립되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경관사업과 경관형성 매뉴얼 등이 제공되어 각종사업 추진 시 참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안반 덕분에 한 시름 덜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군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폭염 피해상황 파악 ▲농작물 피해예방 지속 홍보 ▲담당자 현지 확인 및 관련부서와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평생교육도시’ 군산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시범운영

시, 총 19개 강좌·방문접수만 가능... 12월 7일까지

전국 최초 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군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은 ‘함께하는 삶, 성장하는 기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8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시범운영 강좌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운영 강좌는 문해, 음악, 미술, 체육, 원예, 바리스타, 국악, 댄스 등으로 구성된 종합반 과정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바리스타 제과제빵, 요리, 독서, 댄스 등으로 꾸며진 특별반으로 나눠져 총 19개 강좌, 24명의 수강생이 평생학습관에서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에서는 활동상황 등 상담을 통한 강좌 진행을 위해 방문접수만 받으며,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발달장애 성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범운영 강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154-5920~5) 또는 군산시 평생학습정보망 홈페이지(www.gunsan.g.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최초 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군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은 ‘함께하는 삶, 성장하는 기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8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시범운영 강좌를 운영한다.

다. 군산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이 정규 교육과정 이수 후에도 지속적인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사회적응력과 자존감을 높여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은 모든 사람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세계인권선언문에 기초해 조성됐으며, 교육 단절 시 기초생활능력이 퇴화되는 발달장애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 대학일자리센터 취업 지원 노하우 교류.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지역대학의 학생취업처장, 진로취업지원센터장 등 교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로·취업 지원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7일 우석대 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직무역량교육은 원광대 이윤선 교수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대학 내 안팎의 진로·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업상담 유의점, 직무 안내 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방법, 중소기업 분석요령 등 능력 중심체용의 이해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마련된 가운데 우석대 대학일자리본부장이 주관했다. 원광대 대학일자리센터 최재규 센터장은 “최근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 청년 취업의 어려움, 대학교육의 개방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대내외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역대학 간 취업지원부서 활동을 공유해 공동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전북지역 성장 동력산업 관련 기관 등 20여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재학생과 졸업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청년고용대책 참여 안내 및 지원,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원광대 대학일자리센터 취업 지원 노하우 교류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공군 38전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옥서면 폭염 피해 발작물 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발작물 시들음, 과수 일소피해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옥서면 옥봉리 국방부 탄약고 주변 30ha에 이르는 밭의 농작물 시들음을 증상이 심각함을 확인하고 공군 38전대와 협조체계를 통해 군부대 1.5톤 제독차 2대를 이용해 긴급용수가 필요한 밭작물에 농업용수를 지원했다. 지원을 받은 옥서면 농가는 “기록요령 등 능력 중심체용의 이해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마련된 가운데 우석대 대학일자리본부장이 주관했다. 원광대 대학일자리센터 최재규 센터장은 “최근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 청년 취업의 어려움, 대학교육의 개방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대내외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역대학 간 취업지원부서 활동을 공유해 공동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전북지역 성장 동력산업 관련 기관 등 20여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재학생과 졸업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청년고용대책 참여 안내 및 지원,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안반 덕분에 한 시름 덜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군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폭염 피해상황 파악 ▲농작물 피해예방 지속 홍보 ▲담당자 현지 확인 및 관련부서와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아동 행동 치료교실 운영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9월부터 아동의 내적 스트레스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위축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마음이 쉼쉴 자라는 행동(심리)치료’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동(심리)치료교실은 ‘군산언어발달연구소(대표 양혜선)’와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대상으로 KTRC와 KCYP(아동인성평

정적도, 아동의 심리적 장애나 정신과적 문제를 선별 진단하는 검사)를 실시하여 불안, 우울, 비행, 과잉행동 등 총 14개 항목별 점수가 70점 이상인 아동을 우선으로 총 6명을 선발했다. 이번 교육은 총 10회에 걸쳐 사회성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그룹치료 전문가의 강의로 진행되며, 문제행동

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과정을 거쳐 정서발달이 취약할 수 있는 저소득 위기 아동들에게 자아존중감을 심어주고자 한다.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사회에서 아동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심어주기 위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추진해 아동의 건강장성장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국가예산 확보위해 발품

익산시가 중앙 부처에 요청한 2019년도 국가예산이 기재부 및 국회단체심의회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인간편을 쓰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8일 국회를 방문, 도내 국회의원인 이춘석, 조배숙 등과 함께 국회와 면담을 갖고 시 주요 현안사업의 2019년 국가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정 시장은 익산시 핵심 추진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의 국비 지원을 상향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집중 육성 예정인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286억원),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150억원), 농업분야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이 될 △농생명 ICT 검·인증센터 설립(100억원) 등의 2019년 국비가 전액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익산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 최종 심의가 진행되는 8월까지 지역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ATV / 머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임피언 스키 및 점프선수 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대회의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시모노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휘트	